성 명 서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 홍보에 따른 국가사적지 배제와 관련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32일간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가 삼척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동굴박람회 개최는 많은 시민들이 아는 바와 같이 삼척의 역사 문화와 관광삼척 등을 널리 알려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모든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사의 팔상전과 대웅전은 지방유형문화재 제77호 및 제76호로 지정됐으며 신흥사의 설선당과 심검당은 지방문화재 자료 제108호로 각각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천년고찰인 영은사와 신흥사마저도 처음부터 홍보물에 이름만 일부 거명되거나 아예 누락된 채 제대로 소개가 되지 않고 있는 등 홍보취지에 크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천년고찰인 삼척시미로면 천은사는 우리나라 3대 역사서로 잘 알려진 <제왕운기>를 저술한 '이승휴사적지'로 강원도에서 몇개 밖에 없는 지방유적지 제60호와 국가사적지 421호로 지정된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로서 오는 동굴박람회에 참여하는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에게 관람기회를 박탈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동굴박람회는 실직고도인 삼척의 역사 문화를 널리 알리고 빼어난 자연환경과 동굴도시로서의 관광 삼척 이미지를 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삼척과 우리를 있게 한 문화재라 할 수 있는 이승휴사적지를 대외홍보지 홍보물에는 인근 지역의 산 지명인 쉰음산으로만 표시하고 있으며 영은사 신흥사도 같은 상황인 채 무려 10여가지 홍보물에 약 10만장씩 모두 100여만장을 제작해 전국 및 세계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경로로 홍보 팸플릿의 디자인과 기획하는 과정에서 국가사적지 421호로 지정되고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국민의 테마여행지중 '가 볼만한 곳' 10곳 중 하나로 지정 · 고시된 삼척지역의 유일한 전통사적지 천은사가 실수로 누락돼 인쇄됐다기 보다는 김일동시장이 불교계를 배척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저질러진 횡포라고 단정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2002 삼척세계동굴박람회의 본래목적을 훼손시키고 전 국민들에게 마땅히 알려 박람회개최 기간동안 이곳을 찾는 많은 관공객들이 우리의 역사가 창조된 <제왕운기>의 저술지이고 이승휴의 유허지를 구경할 권리를 원초적으로 박탈당함에 따라 모든 홍보물을 다시 제작 배포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국가사적지 421호를 답사하고 역사문화를 다시 일깨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삼척시의 책임자인 김일동 시장이 만약 우리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첫째. 동굴박람회가 윤리도덕성에 문제가 많은 남근깎기대회 같은 것이나 부각시키면서 우리의 전통문화와 귀중한 문화자산을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는 듯한 의문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도민들과 함께 그 사유를 끝까지 규명할 것입니다.
둘째. 작금의 치적등을 간접적으로 적극홍보하면서 향토문화의 특성을 소홀히한 모든 편향된 시각의 홍보물은 즉각 회수할 것이며, 이런 결과를 초래한 관계공직자에 대하여는 문책이 따라야할 것입니다.
셋째. 이 땅에 이미 토착화된 불교문화를 무시한 듯한 폐쇄적인 처사에 유감을 표명하며, 투철한 역사의식과 포용성을 가지지 못한 행위는 파사현정되어야 할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동굴박람회가 강원도의 중요시책인 향토문화 르네상스운동과 같이 민족 및 향토문화와 연계하여 지방문화의 재창출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참여 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전 강원불교도 이름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2년 5월 11일

●강원불교 연합회장 조계종 제3교구 설악산 신흥사 주지 마근
●한국불교 태 고 종 강원교구 석 왕 사 주 지 편 백 운
●원주불교 연합회장 조 계 종 구 룡 사 주 지 이 원 행
●춘천불교 연합회장 조 계 종 청 평 사 주 지 이 청 화
●영월불교 연합회장 조 계 종 법 흥 사 주 지 김 도 완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 주지 현해
●한국불교 천 태 종 삼 운 사 주 지 김 월 도
●강릉불교 연합회장 조계종 낙 가 사 주 지 이 청 우
●삼척불교 연합회장 조계종 천 은 사 주 지 문 일 봉
●동해불교 연합회장 조계종 삼 화 사 주 지 원 명

알 립 니 다

저는 2001년 10월 16일에 이곳 성읍리 1386-9 법성사라는 사찰을 전주지스님에게 일금 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이곳 성읍리 1386-1로 이사를 왔습니다.
16년전에 이절을 전주지스님에게 팔고 간 스님이 자기것이라며 저에게이곳을 비워 달라며 최고장을 보내고 당신몸이 불구라고 깔보면 큰코다친다고 협박을 하고 몇몇 신도를 선동하여 저에게 출입금지 가처분을 해오고 현재까지 절의 모든행사를 못하게 법당을 접거하고 행패와 욕설을 하는 등 현재까지 아무런 행사를 하지 곳하고 법적대응으로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와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2002년 4월 10일에는 전전주지소유라며(가옥대장상에 멸실되어 없음)공고를 부치고 법당고 요사채를 폐쇄하고 4월 11일에는 절입구를 돌로 담을 쌓아 막아버렸습니다. 없어진 건물이(가옥대장)당신이름으로 도어 있다고 하여 16년젼에 양도증서를 써주고 일금 1,500만원 받고 떠난 사람이 이제와서 5, 6명을 선동하여 기존 신도회장을 해임하고 임으로 새로운 교도회 임원이라 구성하여 임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저에게 갖은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절은 재단법인 대한 일붕선교종에 등록(토지)이 되어있고 건물은 미등기입니다.

법당은 현재 기와지붕으로 약 30-40평으로 되어있고 요사채는 슬라브지붕으로 약 35평됩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법당은(가옥대장) 13평이며 슬레트 지붕으로 되어있고 현재는 밀실되고(15년전)없고 새로지은 기와지붕 40평(법당)입니다.
16년전에 팔아먹고 간 사람이 자기것이라며 법적 교도회(임원)금전,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으며 이문제로 현재 법원에 재판중이며 검찰에 조사중입니다.

교도회원임원이라는 6명은 틈만 나면 절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지만 경찰이 출동하여도 이문제가 재판 중이므로 아무런 조치를 해줄 수가 없다고 몇번이나 되풀이가 되고 이쓰며 4월 23일에 (재단법인대한불교일붕선교종)종단에서 나와 법당을 개방하였으나 4월 23일 저녁에 다시 폐쇄가 되고 이날 저는 임원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등과 목을 맞아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재단 법인 일붕선교종이나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이나 2개로 분열되어있는 상태에서 저는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단법인일붕선교종에서 2001년 11월 1일 자로 주지 임명장을 받았는데 이 절을 16년전에 팔관 스님은 2001년 12월 7일자로 재단법인 일붕선교종에서 발행한 주지임명장을 들고와 당신이 주지라고 나가라고 하길래 제가 사가지고 온 돈만 주면 언제든지 나간다고 하니 돈은 못주고 그냥 나가라고 하는데 나그네가 주인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나라 법인지 모르겠으며 종단싸움에 왜 제가 희생양이 도어야 합니까? 또한 신도는 신도로써 부처님 앞에 참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도지 법당문을 잠그고 절 입구를 막는(새로 구성된 교도회 → 현주지 인정 치 않음) 무슨 신도입니까?

이런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살길이 막막합니다. 어린 세딸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으며 삶의 회의를 느끼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2년 5월 1일자로 16년전에 팔고간(고승립) 명의로 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제주도 검찰청 2002년 503호 검사실담당 사건번호 제 6400호, 제주법원 사건번호 2002카단 15]

성 명 서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수유리소재)종정 무찰 김태현, 총무원장 동봉 정대룡, 대한불교 일붕 선교종(신영동소재)총무원장 장연종 위 두종단 싸움에 희생양이 된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소재 법성사 피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본인은 재단이사인 이영우(정관)씨가 이사직과 재산 소유권을 2002년 3월 31일까지 안 넘겨 주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해 놓고 아직 안 넘겨 줌으로 재단에 재산 소유권을 넘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 사회적 명예훼손 등을 요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단 이사 한사람도 동의 하지 않으면 사찰 처분이 안된다는 약속은 이영우(정관)씨가 자신이 잘 알고 있고 모든 임원들이 더 잘 알고 있으면서 2001년 11월1일자로 사암등록과 주지발행(수유리소재 총무원장 동봉 정대룡)을 해주고 1개월 뒤(2001년 12월 7일)자로 또다른 주지 임명장을 (신영동 발행)받은 쪽에서 법당, 요사채, 사무실과 절입구를 폐쇄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본인은 왜 두 종단싸움에 희생양이 되어야하고 어느쪽이 정당한 종단인지 알 수가 없으니(신영동소재, 수유리소재) 두 종단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16년전 주지(원효종)고승립씨는 이영우(정관)스님에게 추천서와 양도증서를 써주고 떠난 사람이 지금와서 당신(고승립)사찰이라고 본인에게 사찰에서 나가라고 멱멱 신도를 선동하여(교도회임원을 구성)절에 모든 행사를 방해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영동 소재(총무원장봉암장연종) 수유리 소재(총무원장 동봉정대룡) 두 종단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여 법성사가 사찰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 주고 스님은 스님의 본분으로 신도는 신도의 본분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증빙서류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2. 사암 등록증 3. 주지 임명장 4.추천서 5. 양도증서

추 천 서

금반 본인은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소재
법성사 주지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후임 주지로 이영우(정관)스님을 최적임자로
선정하고 추천하는 한편 사찰 재산 일체를 위임하나이다.

서기 1986년 12월

추천인 고승립 제주 종무원장
대한불교 원효종 귀하

양 도 증 서

금반 본인은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소재 법성사
주지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사찰 재산 일체를 양도하고
(대웅전, 종각, 요사 2동)및 이동수 전 악 일백삼십평(130평)을
이영우(정관)스님에게일금 일천오백만원을 받고 양도함.

양도자 고승립
양수인 이영우(정관)
서기 1986년 12월 16일

효사 육임강의록

출 시

육임 좋다는 것은 다 아는데, 그동안 공부할만한 교재가 없었습니다.
육임 전문가용을 여러권 쓰고 전국을 다니며 강의를 해 오는 동안 쉽고 빠른 입문교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이번에 체계적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효 사-

◆값 300,000원
◆입 금 : 한빛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 문
◆전 화 : 02-993-8680
◆부산지사 : 051)851-2349

강의록 순서
기본편
입문편
활용편
전문편
형이상편
운명판단편
세밀정단편
길흉상담편
국수래정편
30년 월장편

■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전문가용)
좌정용 : 1,300,000원
휴대용 : 1,500,000원
증보판 : 350,000원

제2차 육임수강생모집

3개월 12주 완성

◆ 강의시작 : 6월 7일 오후 7시부터 ◆ 강의시간 : 3시간
◆ 교 재 : 효사 육임 강의록
◆ 수 강 비 : 1,500,000원(교재 효사육임강의록 포함)
◆ 마 감 : 6월 5일까지 선착순 ◆ 정 원 : 30분
◆ 입 금 : 한 빛 813-041583-13-101 ◆ 전 화 : 02-996-3335

한국육임학회 육 임 학 당 효 사 숙

■ 육임비디오 수강 1,200,000원(교재 효사육임강의록 포함)
– 3개월 12주 강의 내용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으므로 강의록 교재와 같이 읽고 보시면 공부가 완성됩니다. –

육임신수비결 250,000원 육임세밀정단법 100,000원
육임형이상법 150,000원 육임운명판단법 130,000원